

중기중앙회,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 정책방안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늘려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

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후 매입시 할인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양찬희 KBV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남원축협은 지난 21일 남원시 송동면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선풍기 291대를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 상생협력' 행사를 실시했다.

전북농협 - 남원축협 - 나눔축산운동본부

호우 피해농가 구호물품 지원

선풍기 291대 등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21일 남원시 송동면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선풍기 291대(1,05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 상생협력'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축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송동면 및 금지면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강병무 조합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장비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축산농가 및 피해주민의 수해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농협과 축산단체, 축산농가들이 한뜻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사랑받도록 봉사의 나눔축산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 남원축협 강병무 조합장 및 임직원, 남원시지부 박노현 지부장, 김양우 축산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나눔축산운동은 2012년부터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집중호우피해 금융지원 전담창구 운영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 및 기업에 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 지역주민 등은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은 피해액 범위에서 기업이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최대 1.0%이내(농업인 최대 1.6%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 납입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고, 최장 12개월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시지부는 피해가 심한 금지면 일원에서 복구지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전북은행, 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전담창구 운영

남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0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전담창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의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전담창구를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의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20일에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지원, 전주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사거리에서 지역주민과 기업들에게 수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5일부터 집중호우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실시중으로 피해지역 내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피해극복을 위한 신규자금지원, 기존 대출금 기한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8일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성금 5,000만원을 전북도청에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LX, 29일 예정 신입사원 공채시험 9월 말로 연기 결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시험 연기'라는 용단을 내렸다.

LX는 오는 29일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공채시험 일자를 시민건강과 수험생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전파가 안정된다는 조건 하에 9월 말 이후로 연기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LX인사관련 담당자는 "공사와 전주시는 고심 끝에 '지역사회 유행 시에는 연기나 취소가 원칙'이란 정부정책에 따라 공채시험을 연기하기로 협의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방향에 맞춘 중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된 이번 공채시험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3,500여명 이상의 시험응시자가 전주시를 찾은 예정이었다.

한편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총 18명의 확진자 중 15명이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확진자가 전북을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

농산물, 휴가철 축산물 등 부정유통 단속서 456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자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날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4천여 개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

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화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관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지능적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